

나주 혁신도시 토지보상 실태 조사 오늘부터 시작

“6,000억대 보상금 잡아라” 금융·부동산업계 유치전

5월까지 협의, 9월부터 돈 풀릴 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의 토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작업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보상금 유치를 놓고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6일 한국토지공사와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 균형발전 일환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7일 나주 금천면사무소에서 열리는 토지보상 실태조사로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사업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2~3월경 기본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4월 보상 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까지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도시는 총 보상금이 6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보상금 행방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상에는 나주 금천·산포·봉황면 일대 220만평의 용지를 비롯 ▲지방물▲영농보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금융권과 부동산업계가 수천억원대의 보상금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마케팅 기획팀을 중심으로 전남 T/F팀을 구성해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3월 이내에 지역공헌팀을 신설하는 등 보상금 유치에 적극 나설 방

침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해당 지부를 통해 홍보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양한 옵션의 예금상품을 활용해 보상금을 유치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도 보상금의 흐름을 잡기 위해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보상금의 20~30%가량이 현물로 보상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4천억원 이상이 현금형태로 풀리는 데다 통상 보상이 이뤄질 경우 인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둘러싼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주민 대표 단체가 ‘지역민보상대책위원회’와 ‘원주민보상협의회’로 나뉘어져 사업 추진에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나주시와 지역민들의 수차례 결친 합병 요청을 외면한채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나서는 등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또 보상 대상 토지 가운데 37%가 외지인 소유로 나타난 향후 보상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촌봉사활동 앞장” (사)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회장 문은자)는 6일 농협전남본부 대강당에서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봉사활동, 친환경 농산물 생산,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활동 등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전남농협 제공>

‘DTI 규제’ 더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

시중銀, 신용등급 낮으면 35% 적용 검토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이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상당수 소비자들은 이보다 낮은 30%대에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공식 소득증빙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등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 DTI를 5%포인트 낮은 35%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DTI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받으면서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DTI 규제를 더욱 강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우선 공공 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소득 증빙 서류 외에 자기신고 소득 등 인정소득에 대해 DTI를 5%포인트 가량 차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기신고 소득은 신용카드 매출액, 은행 입금액, 국민연금 납입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입증 자료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소득이다. 이같은 인정소득은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는 공식 소득증명서에 비해 신

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득을 전액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상당수 선진국 금융회사들도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DTI를 5%포인트 차감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도 DTI 한도를 40%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대출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현금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다고 추정되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등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일부 고객들의 경우 담보가 명확하더라도 정상적인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한도를 추가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은 신용등급 및 직업안정성에 따라 DTI 적용 한도를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6일 광주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해소 등을 위해 광주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날 “2007년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전량과 분 석”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건설교통부가 일부 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투기과열 대상이 아닌 광주시까지 포함돼 지역 주택건설사는 물론

시민들까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광주를 제외하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는 또 “광주는 지난해 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문 데다 미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지역건설사들의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지역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증기업체 모집

광주·전남 증기청 12일까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장순호 증기청장)는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한다.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분야 15개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오는 12일까지 참여업체 신청을 통해 현장평가 및 진단을 받은 후 3월초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의 수출지원센터 김규오 (062) 360-9192.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축협 등 전남 6곳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06년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협에 전남에서는 6곳이 포함됐다. 6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전국 1천293개 회원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상호금융사업부문 종합평가에서 전남에서는 광주축협, 보성축협, 광주원협, 곡성 옥과농협, 광양원협, 화순농협 등 6곳이 ‘2006년 상호금융대상’ 수상 농협 81곳에 포함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들 6곳의 개별 평가는 광주축협은 전국 1위, 보성축협 2위, 광주원협·옥과농협·광양원협이 3위, 화순농협이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농협중앙회가 매년 상호금융사업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농협에 주는 이 상은 수지관리, 채권관리, 여신, 수신, 전자금융, 일반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 수상 농협을 뽑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수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정병준 광주 국제청장

정병준 광주지방국제청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6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신양파크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 ‘국제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취약한 산업기반 등을

고려, 기업인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으로 및 재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인하요구와 관련, 정 청장은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특히 최근 기업 과세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월 ‘보금자리론’ 판매 2,414억

대출규제 강화에 작년 12월보다 43% 급증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1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이 2천414억원으로 지난해 12월의 1천690억원보다 4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5년 9월의 2천656억원 이

후 가장 큰 규모다. 보금자리론이 이처럼 크게 인기를 끈 이유는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규제 여파로 대출 고객을 돌려보냈지만 공사 상품은 이같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또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오르는 동안 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오히려 내리면서 금리 경쟁력이 제고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인터넷에서 취급하는 e모기 지론의 공급실적은 1천268억원(1천331건)으로 1월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금융회사별 공급실적은 하나은행 1천319억원(54.6%), 우리은행 244억원(10.1%), 삼성생명 226억원(9.4%), 국민은행 195억원(8.1%) 등 순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자격지배율 13.14% 전국 최대 합격자 배출학원. 2월 1일 시험. 361-8111

세무(회) 행정의 예외!! 세무(회) 행정의 예외!! 세무(회) 행정의 예외!!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중개사 특강. 중개사 특강. 중개사 특강.

등불! 등불! 등불! 등불!